

KOTRA자료 25-094

# 독일 수출 구조 분석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독일 수출 구조 분석

---

2025. 7. 31.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1

## 독일 수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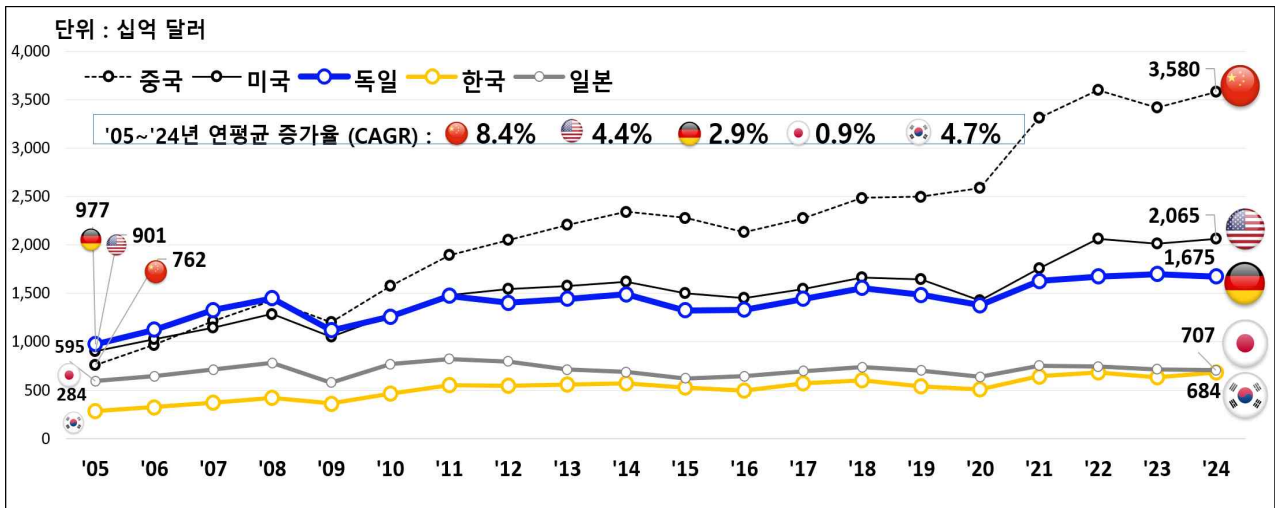
### □ '24년 독일 수출 동향

- (수출액) '24년 독일 수출액은 1조 6,753억 달러 규모로, 세계 3위 기록  
- 대외 불확실성 및 경기 둔화로 전년 대비 수출 소폭 감소(△1.6%)  
\* 수출액(달러): ('22) 1조6,771억(+2.8%) → ('23) 1조7,032억(+1.6%) → ('24) 1조 6,753억(△1.6%)
- (GDP比) '24년 독일 GDP(4조 6,585억 달러) 대비 수출 비중은 35.9%로  
수출은 독일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 수행
- (수출국)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에서 10.4% 비중 차지  
\* 수출 비중('24년 기준): 미국(1,747억 달러, 10.4%), 프랑스(1,245억 달러, 7.4%), 네덜란드  
(1,176억 달러, 7.0%), 폴란드(1,008억 달러, 6.0%) 순
- (수출물량) '20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 오다 '24년 소폭 반등  
\* 수출 물량(t): ('20) 4.1억 → ('21) 3.9억 → ('22) 3.8억 → ('23) 3.48억 → ('24) 3.52억

### □ 최근 20년간(2005~2024) 독일 수출 동향

- '05~'08년 세계 1위 수출국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중국 및 인도 등 신흥국 제조 기지화와 공급망 재편 등으로, 中·美에 이어 3위 유지 중 ('12~)
- EU 역내 교역 확대\*로 '05~'08년 수출은 큰폭으로 증가, 이후 '05~'24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2.9%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임
- \* ('04년) 폴란드, 체코 등 10개국 / ('07년) 루마니아, 불가리아 가입으로 총 27개국으로 확대

< 최근 20년 한국·독일·미국·중국 수출 변화 비교 >



자료: Global Trade Atlas

## 1) 품목별 분석

## □ (현황) '24년 기준 독일 수출 상위 10대 품목

- 독일의 주요 수출 품목<sup>(HS코드 4단위)</sup>은 △자동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인혈·면역물품 등으로 총수출 중 10대 품목 수출 비중이 28.5%(4,789억 달러)
- (자동차) 독일 차량의 글로벌 판매 감소에도 수출 품목 중 1위 유지
  - \* '24년 독일 OEM 판매 대수는 폭스바겐 1.8% 감소, 벤츠와 BMW 각 4% 감소
  - \* 전기차 전환 미흡, 공급망 불안정, 美 현지 생산 압박 증가로 자동차 수출 리스크 가중
- (의약품) 화학·바이오 기반의 고부가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안정적 수출 유지, '24년 독일 수출 2위 품목
  - \* 바이엘, 베링거 잉겔하임, 머크 등이 항암제, 호르몬제, 당뇨병 등 전문의약품 선도
- (자동차부품) 완성차시장 둔화의 영향으로 부품 수출도 동반 감소
  - \* 주요 Tier 1(Bosch 세계 1위, ZF 3위, 콘티넨탈 5위)은 경쟁 심화로 구조조정 추진
- (인혈·면역물품) 백신 및 면역치료제의 글로벌 수요 확대에 성장세
- (기타 항공기) 항공기 엔진 및 각종 부품과 Airbus의 주요 생산기지 중 하나로, '24년 수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전반적 수요는 안정세

## &lt; 독일의 10대 수출품목 ('22년~'24년) &gt;

(단위: 억 달러, %, 전년비%)

연번	HS코드	품목명	22년		23년		24년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증감률
총 계			16,771	100	17,032	100	16,753	100	△1.6
1	8703	자동차	1,560	9.3	1,782	10.5	1,750	10.4	△1.8
2	3004	의약품	744	4.4	673	4.0	670	4.0	△0.4
3	8708	자동차부품	615	3.7	676	4.0	638	3.8	△5.6
4	3002	인혈·면역물품	445	2.7	457	2.7	491	2.9	7.6
5	8802	기타 항공기	223	1.3	267	1.6	262	1.6	△1.8
6	2710	석유 및 역청유 <sup>(원유제외)</sup>	254	1.5	203	1.2	215	1.3	6.1
7	8479	기타 기계류	171	1.0	195	1.1	196	1.2	0.9
8	9018	내과·외과·치과용 기기	177	1.1	191	1.1	193	1.2	1.2
9	8542	전자집적회로	200	1.2	218	1.3	188	1.1	△14.1
10	8421	원심분리기·여과기·청정기	162	1.0	173	1.0	166	1.0	△3.9
10대 품목 합계			4,551	27.1	4,835	28.4	4,769	28.5	△1.4

자료: Global Trade Atlas

□ (추이 변화) 최근 10년간 독일 10대 수출 품목 변화

○ 10년 동안 총수출에서 10대 품목의 수출 비중은 28.3%~28.5%로 유지

√ 한국의 수출 상위 10대 품목 비중은 '15년 47.7%에서 '24년 50.2%로 +2.5%p 증가

○ '15년 독일 10대 수출 품목 중 8개 품목이 '24년에도 유지됨

\* '24년 1위(자동차)~8위(내과·외과·치과용기기) 품목이 '15년에도 10대 수출 품목

- (신규) 전자집적회로, 원심분리기·여과기·청정기 2개 품목 최근 신규 진입

- (이탈) 엔진부품, 자동차자료처리기계(컴퓨터) 품목은 10위권에서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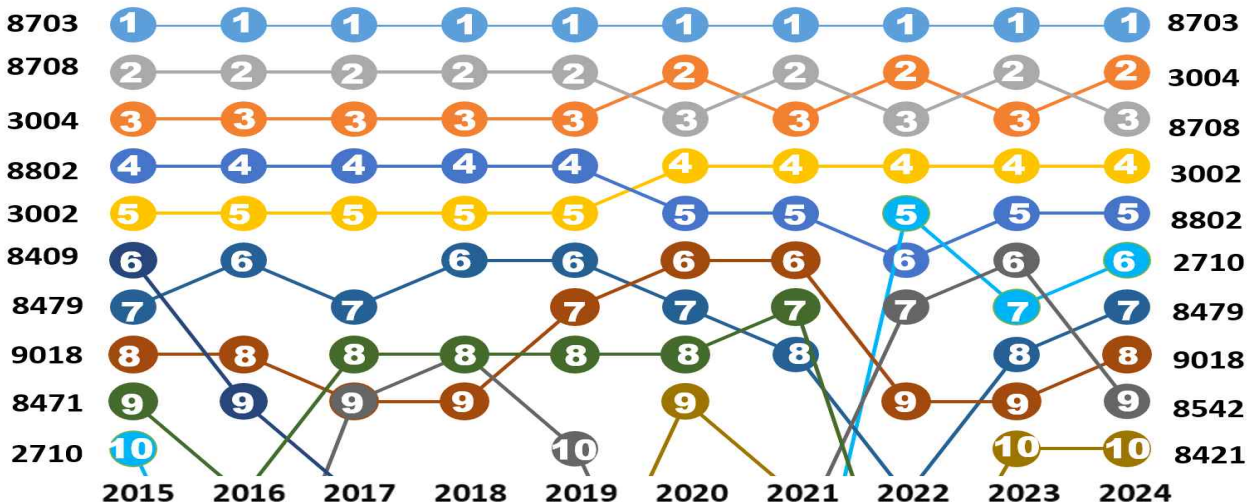
< 독일의 10대 수출 품목 변화 ('15년, '24년) >

(단위: 억 달러, %)

연번	HS코드	품목명	'15년		HS코드	품목명	'24년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총 계			13,273	100	총 계			16,753	100
1	8703	자동차	1,529	11.5	8703	자동차	1,750	10.4	
2	8708	자동차부품	534	4.0	3004	의약품	670	4.0	
3	3004	의약품	490	3.7	8708	자동차부품	638	3.8	
4	8802	기타 항공기	340	2.6	3002	인혈·면역물품	491	2.9	
5	3002	인혈·면역물품	217	1.6	8802	기타 항공기	262	1.6	
6	8409	엔진 부품	135	1.0	2710	석유 및 역청유(원유제외)	215	1.3	
7	8479	기타 기계류	131	1.0	8479	기타 기계류	196	1.2	
8	9018	내과·외과·치과용 기기	127	1.0	9018	내과·외과·치과용 기기	193	1.2	
9	8471	자동차자료처리기계	126	0.9	8542	전자집적회로	188	1.1	
10	2710	석유 및 역청유(원유제외)	124	0.9	8421	원심분리기·여과기·청정기	166	1.0	
10대 품목 합계			3,753	28.3	10대 품목 합계			4,769	28.5

자료: Global Trade Atlas

< 독일의 10대 수출품목 순위 변화 (2015~2024년) >



☞ (평가) 독일은 자동차·의약품·기계 등에서 여전히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디지털·AI 등과 연계한 미래산업 전환이 늦어 새로운 수출 동력 확보 애로

## 2) 수출대상국별 분석

### □ (현황) '24년 독일 수출 상위 10대 국가

- 주요 수출국은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중국 등으로 10대 국가가 총수출의 60% 비중 차지
- (미국) 독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수출액이 지속 증가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어 10.4% 차지
  - \* (22년) 1,640억 달러(9.8%) → (23년) 1,708억 달러(10.0%) → (24년) 1,747억 달러(10.4%)
- (중국) 中 제조 경쟁력 내재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액 및 비중 감소 추세
  - \* (22년) 1,125억 달러(6.7%) → (23년) 1,053억 달러(6.2%) → (24년) 973억 달러(5.8%)
- (유럽) 프랑스(2위), 네덜란드(3위), 폴란드(4위) 등 인접국이 수출 대상국 상위권으로 10대국 중 8개국이 유럽 국가이며, 독일 전체 수출의 54.4%(9,114억 달러)가 EU 역내 교역
  - \* ('24년) 수출 1조6753억 달러(100%) = 9,114억 달러(역내 54.4%) + 7,639억 달러(역외 45.6%)

#### < 독일의 10대 수출국 ('22년~'24년) >

(단위: 억 달러, %, 전년비%)

연번	국가명	'22년		'23년		'24년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증감률
<b>총 계</b>		<b>16,771</b>	<b>100</b>	<b>17,032</b>	<b>100</b>	<b>16,753</b>	<b>100</b>	<b>△1.6%</b>
1	미국	1,640	9.8	1,708	10.0	1,747	10.4	2.3%
2	프랑스	1,240	7.4	1,291	7.6	1,245	7.4	△3.6%
3	네덜란드	1,169	7.0	1,202	7.1	1,176	7.0	△2.2%
4	폴란드	974	5.8	979	5.7	1,008	6.0	3.0%
5	중국	1,125	6.7	1,053	6.2	973	5.8	△7.6%
6	영국	776	4.6	848	5.0	869	5.2	2.5%
7	이탈리아	937	5.6	921	5.4	865	5.2	△6.1%
8	오스트리아	881	5.3	844	5.0	810	4.8	△4.0%
9	스위스	743	4.4	722	4.2	735	4.4	1.8%
10	벨기에	660	3.9	655	3.8	629	3.8	△4.0%
<b>10대국 합계</b>		<b>10,145</b>	<b>60.5</b>	<b>10,223</b>	<b>60.0</b>	<b>10,057</b>	<b>60.0</b>	<b>△1.6%</b>

자료: Global Trade Atlas

√ '24년 독일의 대한민국 수출액은 212억 달러로 19번째 수출대상국이며, 독일 총수출에서 1.3% 비중

□ (추이 변화) 최근 10년간 독일 10대 수출국 변화

- '24년 독일 10대 수출국은 '15년 대비 순위 변동만 있고 동일, 총 수출에서 10대국 비중은 59.2%에서 60%로 소폭 증가

√ 한국의 수출 상위 10대 국가 비중은 '15년 66.7%에서 '24년 70.8%로 4.1%p 증가

- (영국) '20년 브렉시트 이후 대영국 수출 금액과 비중 감소

\* ('15년) 987억 달러(7.4%) → ('24년) 869억 달러(5.2%)

- (폴란드) 동유럽 경제성장 및 역내 가치사슬 강화에 따른 폴란드에 대한 독일의 직접 투자 확대로 중간재 수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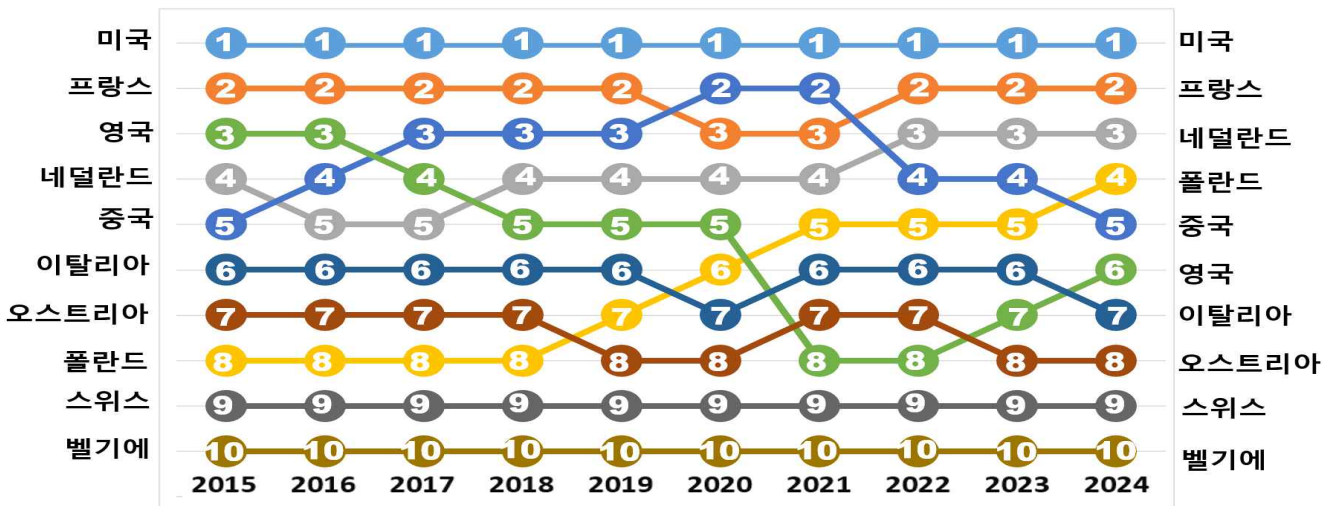
< 독일의 10대 수출국 변화 ('15년, '24년) >

(단위: 억 달러, %)

연번	국가명	'15년		국가명	'24년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총 계	13,273	100	총 계	16,753	100
1	미국	1,264	9.5	미국	1,747	10.4
2	프랑스	1,142	8.6	프랑스	1,245	7.4
3	영국	987	7.4	네덜란드	1,176	7.0
4	네덜란드	819	6.2	폴란드	1,008	6.0
5	중국	792	6.0	중국	973	5.8
6	이탈리아	641	4.8	영국	869	5.2
7	오스트리아	638	4.8	이탈리아	865	5.2
8	폴란드	577	4.3	오스트리아	810	4.8
9	스위스	542	4.1	스위스	735	4.4
10	벨기에	456	3.4	벨기에	629	3.8
	10대국 합계	7,858	59.2	10대국 합계	10,057	60.0

자료: Global Trade Atlas

< 독일의 10대 수출국가 순위 변화 (2015~2024년) >



☞ (평가) 독일은 EU 역내 수출 비중이 54.4%(9,114억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높으며, 역외 주요 수출국인 미국·중국과는 각각 통상이슈 및 제조업 경쟁으로 리스크 직면

### 3

## 독일 수출의 특성 및 경쟁력

### ① 수출 중심 개방형 경제 구조

- 독일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35.9%로 수출이 국가 경제를 견인
  - '24년 수출 상위 10개국 중 중계 무역이 강한 홍콩과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한국과 함께 GDP 대비 수출 비중 최상위 국가
  - \* 비중: 1위(홍콩/157%), 2위(네덜란드/75%), 3위(한국/36.6%), 4위(독일/35.9%)
  - 독일 전체 일자리의 28%가 수출과 연관 ('24년 독일 연방통계청)

< '24년 상위 10대 수출국의 GDP 대비 수출 현황 > (단위: 십억 달러, %)

연번	국가명	GDP(순위)	수출액	GDP 대비 수출액 비중(순위)
1	중국	18,748	3,580	19.1 (8)
2	미국	29,185	2,062	7.1 (10)
3	<b>독일</b>	<b>4,659</b>	<b>1,675</b>	<b>35.9 (4)</b>
4	네덜란드	1,227	921	75.0 (2)
5	일본	4,026	707	17.6 (9)
6	<b>한국</b>	<b>1,870</b>	<b>684</b>	<b>36.6 (3)</b>
7	이탈리아	2,372	674	28.4 (5)
8	홍콩	407	641	157.5 (1)
9	프랑스	3,162	628	19.9 (7)
10	캐나다	2,241	570	25.4 (6)

자료: IMF, Global Trade Atlas

### ② 중소기업 기반의 탄탄한 수출 저변 확보

- '23년 독일 전체 수출기업 수는 한국 대비 2.7배
  - (독일) 전체 26만 7천 개사가 수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중소기업이 25만 8천 개사(97%)로 다수 차지
  - (한국) 전체 9만 7천 개사가 수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중소기업이 9만 6천 개사(99%)로 중소기업이 절대다수

< 독일 및 한국 중소·중견기업 비교 ('23년 최신 기준) > (자료: 獨중소기업 연구소(ifM) / 韓통계청)

항목	독일	한국
전체 수출기업 수	약 26만 7천 개사	약 9만 7,231 개사
중소기업(韓중견 포함) 수출기업 수	약 25만 8천 개사 (97%)	약 9만 6,242 개사 (99%)
중소기업(韓중견 포함) 수출액 비중	전체 수출의 23%	전체 수출의 19%

< 독일 중소기업 및 한국 중소·중견기업 정의 차이 >

- (독일) 중소기업 정의: (고용) 250명 미만, (연매출) 5천만 유로 이하 (독일은 유럽 기준 적용)
- (한국) 중소기업 정의: (고용) 1천명 미만, (자산총액) 5천억 미만 등 /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

☞ 독일 중소기업 정의상 기업규모가 한국과 비교하여 작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은 오히려 독일이 상대적 우위 (獨 23% vs. 韓 19%)

### ③ 다양한 품목군에서 수출 경쟁력 확보

○ 총수출액 중 10대 수출 품목(HS 4단위) 비중이 약 28.5%

- 독일은 자동차, 기계, 항공기, 화학, 의약 등 다양한 품목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품목군에서 소부장에서 완제품까지 수출

\* 10대 수출 품목 비중: 1위(홍콩, 72.4%), 2위(한국, 50.2%) ~ 7위 (독일, 28.5%)

< '24년 상위 10대 수출국의 10대 수출 품목 규모 및 비중 > (단위: 억 달러, %)

연번	국가명	10대 수출 품목 규모	10대 수출 품목 비중(순위)
1	중국	9,800	27.4 (9)
2	미국	7,288	35.4 (5)
3	독일	4,769	28.5 (7)
4	네덜란드	3,100	33.7 (6)
5	일본	3,098	43.8 (3)
6	한국	3,432	50.2 (2)
7	이탈리아	1,545	22.9 (10)
8	홍콩	4,636	72.4 (1)
9	프랑스	1,742	27.8 (8)
10	캐나다	2,479	43.5 (4)

자료: Global Trade Atlas

√ 20대 수출 품목으로 확대 시, 독일 순위는 9위(37.3%)로 품목 다양성 확대

\* 20대 품목 수출 비중: 1위(홍콩, 81.6%), 2위(한국, 60.5%)~ 8위(중국, 37.7%), 9위 (독일, 37.3%)

### ④ 단일경제권인 EU 이점을 활용,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

○ '24년 독일 전체 수출의 54.4%(9,114억 달러)가 EU 역내에서 창출

- 독일은 EU 27개 회원국 간 무역장벽 최소화(무관세, 무통관, 규제완화)를 활용, EU 중심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조 가치사슬 구축

- 유럽 중앙에 자리한 지리적 이점 활용, 항공·해상·철도에 이르는 촘촘한 물류망을 구축하며 역내 거점 역할 수행

\* (항공) 프랑크푸르트-라이프치히 유럽 최대 항공 화물 허브 / (항만) 함부르크 등 해상 물류 중심, 내륙 수로망(약 7,350km) 활용 복합 운송 / (철도) EU를 넘어 러시아-중국까지 연결

< 독일 EU 역내 수출 비중(2022~2024) > (단위: 억 달러, %)

연도	전체 수출액	EU 역내 수출액 (비중)	EU 역외 수출액(비중)
2022	16,771	9,174 (54.7%)	7,597 (45.3%)
2023	17,032	9,231 (54.2%)	7,801 (45.8%)
2024	16,753	9,114 (54.4%)	7,639 (45.6%)

자료: Global Trade Atlas, 독일 연방통계청

√ ('24년 기준) 독일 역외 수출액(7,639억 달러)과 한국 전체 수출액(6,838억 달러) 단순 비교 시, 수출액 차이는 801억 달러

### ⑤ 유로화 도입에 따른 수출 환경의 구조적 개선

- 경제 펀더멘털이 상이한 EU 회원국이 '02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채택하면서 독일은 상대적 통화 약세 및 거래비용 절감 효과 수혜

\* 총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Eurozone) 가입

- (통화 약세 효과)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 절상 압력을 상대적으로 경제가 취약한 남유럽 등 유로존 차원에서 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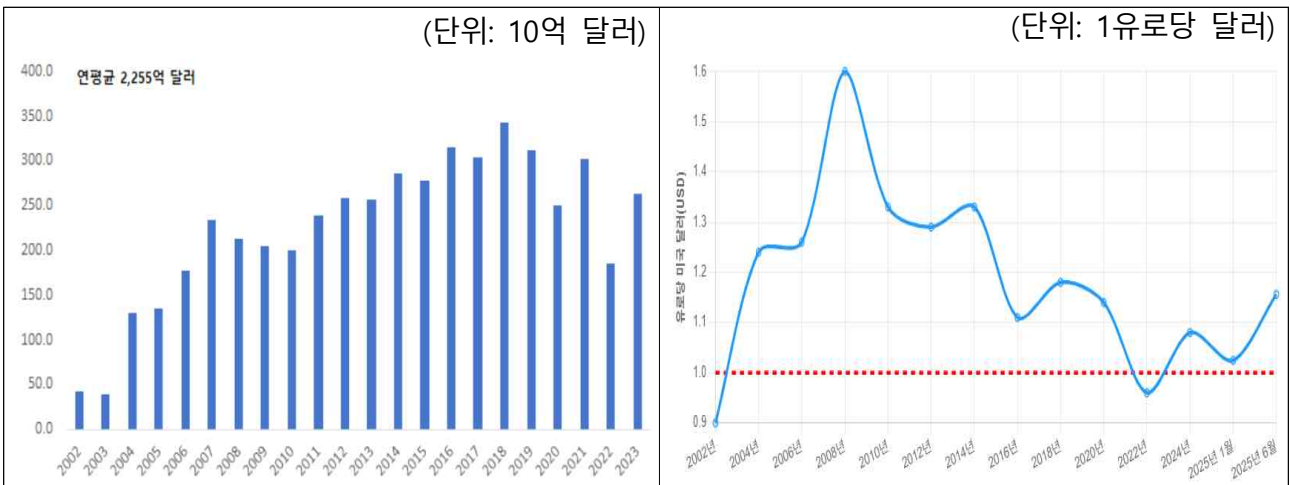
\* '02년~'23년 기간 매년 경상수지 흑자 기록(연평균 2,255억 달러, 세계 1위)

\* '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로화가 달러 대비 장기 약세 시현, '25년 강세 소폭 전환

- (거래비용 절감) 유로존 교역 시 환변동 리스크 및 환전 비용 제거

< 독일 경상수지('02~'23년) >

< 유로/달러 환율 추이 ('02~'25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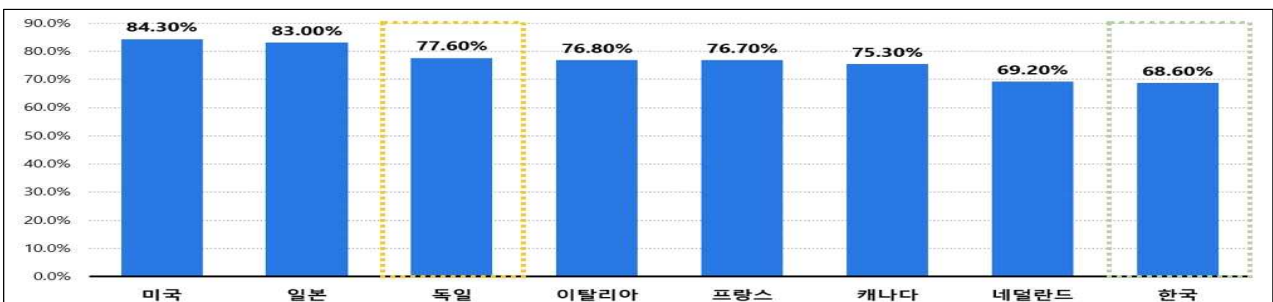


자료: 월드뱅크, 유럽중앙은행(ECB),

### ⑥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 구조

- 최종재의 수출가격에서 원부자재의 수입가격을 제외한 순수 국내 창출 부가가치 비중에서 독일은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기록

< OECD 수출 주요국의 총 수출액 중 국내 창출 부가가치 비중 > (단위: %)



주: OECD의 '20년 최신자료 기준, 10대 수출국 중 OECD 비회원국인 중국과 홍콩은 제외

## ① (통상환경) 미국 관세 등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영향 다대

- 최근 미-EU 관세 합의로 불확실성 해소와 무역 갈등 심화가 일단락되며, 안도감이 조성되었으나, 독일 산업의 비용 증가 및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존

\* '25.7.27. 미-EU 관세 합의로 대부분 유럽 제품에 15% 관세, 철강·알루미늄에는 50% 유지, 일부 품목(항공·우주 부품, 반도체 장비, 제네릭 의약품, 농산물)은 상호 무관세 적용

\* '25.5. 당월 독일의 대미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4% 감소 (자료: GTA, 현재 기준 최신 수치)

## ② (글로벌 경쟁 심화) 중국 등 경쟁국의 기술 추격 가속화 속 독일의 주력산업(자동차·기계·화학) 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

- (자동차) '04년 2위(점유율 12.3%) → '24년 5위(5.1%)로 하락

\* '24년 승용차 생산량 기준 중국 1위(32.1%), 미국 2위(12.7%), 일본 3위 (9.7%), 인도 4위 (6.3%), 한국 6위(4.8%) 순 (자료: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등)

- (기계) '04년 1위(점유율 19%) → '24년 3위(11.2%)로 하락

\* '24년 기계산업 매출액 기준 중국 1위(35%), 미국 2위(13%), 독일 3위 (11.2%) 순 (자료: 독일기계및설비제조협회(VDMA))

- (화학) '00년 2위(점유율 12.3%) → '23년 3위(9%)로 하락

\* '23년 중국의 점유율은 43%로 1위, 미국이 11%로 2위 (자료: GTA)

## ③ (제조업 경쟁력 우려) 지정학적 위기 속 높은 에너지 비용,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자국 내 공장 운영에 대한 경제성이 지속 하락

- (에너지) 러-우 사태 이후 높아진 에너지 가격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

- (노동 시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이 산업 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

\* OECD 최저 근로시간('23년 기준 연간 독일 1,343시간<sup>34위</sup>, 한국 1,872시간<sup>6위</sup>) 및 최고 병가일 수('23년 기준, 1인당 연간 19.4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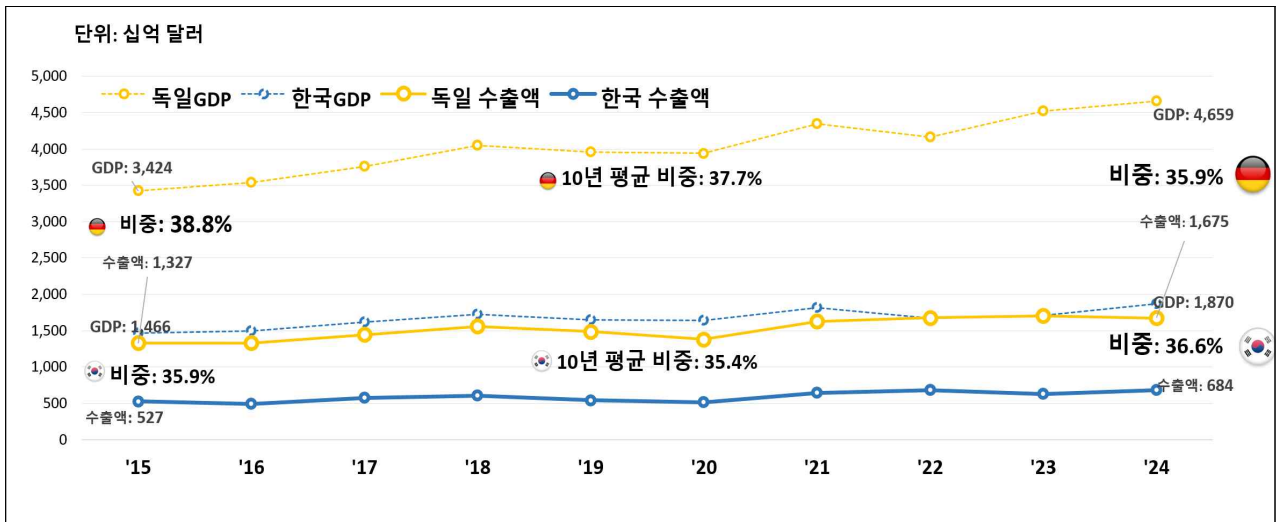
- (공장 이전) 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은 생산기지 해외 이전 확산

\* 글로벌 화학 1위 기업 BASF는 독일 본사 공장 내 암모니아, 나일론 등 일부 생산라인 폐쇄(유럽 전체 감산) 및 중국 집중 투자(100억 유로 규모) 계획

## 1) 한국-독일 수출 구조 비교

- (GDP 기여) '2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36.6%로 독일의 35.9%보다 0.7%p 높음
  - '15년은 독일 38.8%, 한국 35.9%로 독일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이 2.9%p 더 높았으나, '24년은 수출 호조세로 한국의 수출 비중 상승

&lt; 최근 10년 한국-독일 GDP 및 수출액 변화 비교 &gt;



- (품목) '24년 기준, 한국의 수출 상위 10대 품목 비중은 50.2%로 독일의 28.5%보다 21.7%p 높음
  - 독일의 수출 상위 10대 품목 비중은 '15년 28.3%에서 '24년 28.5%로 큰 차이가 없으나, 한국은 '15년 47.7%에서 '24년 50.2%로 +2.5p 증가

&lt; 최근 10년 한국-독일 10대 수출 품목 규모 및 비중 &gt; (단위: 억 달러, %)

연도	한국 10대 품목 수출액(비중)	독일 10대 품목 수출액(비중)
2015	2,513 (47.7)	3,753 (28.3)
2016	2,252 (45.5)	3,893 (29.2)
2017	2,673 (46.6)	4,072 (28.2)
2018	2,731 (45.2)	4,159 (26.7)
2019	2,474 (45.6)	4,000 (26.9)
2020	2,323 (45.3)	3,680 (26.7)
2021	2,954 (45.9)	4,225 (25.9)
2022	3,243 (47.4)	4,551 (27.1)
2023	2,991 (47.3)	4,833 (28.4)
2024	3,432 (50.2)	4,769 (28.5)

자료: Global Trade Atlas

- '24년 기준, 한국과 독일의 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 전자집적회로·승용차·석유화학·자동차부품 4개 품목이 경합
- 독일의 최대 산업이며 수출품인 자동차 분야는 완성차와 부품에서 독일이 강점, 반도체와 석유화학은 한국이 우위

< '24년 한국-독일 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 주요 경합 품목 > (단위: 억 달러, %)

품목 (HS코드)	韓 수출액 (비중)	獨 수출액 (비중)	우위 국가	비교
전자집적회로 (HS 8542)	1,202 (17.6%)	188 (1.1%)	한국	· (한국) 반도체 산업 세계적 경쟁 우위 · (독일) 차량용 반도체에서 강점 보유
승용차 (HS 8703)	683 (10.0%)	1,750 (10.4%)	독일	· (한국) 성능 대비 가격경쟁력, 전기차 전환 · (독일) 고급 차량 분야 강점
석유 및 역청유 (HS 2710)	495 (7.2%)	215 (1.3%)	한국	· (한국) 규모와 경제성 면에서 우위 · (독일) 에너지 가격, 고임금으로 경쟁력 약화
자동차 부품 (HS 8708)	188 (2.8%)	638 (3.8%)	독일	· (한국) 글로벌 자동차부품 시장 경쟁력 확대 · (독일) OEM 독 3사와 연계, 생산기술 우위

□ (국가) '24년 기준, 한국의 수출 상위 10대 국가 비중은 70.8%로 독일의 60.0%보다 10.8%p 높음

- 독일의 수출 상위 10대 국가 비중은 '15년 59.2%에서 '24년 60.0%로 +0.8%p 증가한 반면, 한국은 66.7%에서 70.8%로 +4.1%p 증가

<최근 10년 한국-독일 10대 수출국 수출액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

연도	한국 10대 수출국 수출액(비중)	독일 10대 수출국 수출액(비중)
2015	3,515 (66.7)	7,858 (59.2)
2016	3,344 (67.5)	7,866 (59.0)
2017	3,968 (69.2)	8,501 (58.8)
2018	4,317 (71.4)	9,130 (58.7)
2019	3,814 (70.3)	8,759 (58.9)
2020	3,678 (71.8)	8,214 (59.5)
2021	4,595 (71.3)	9,696 (59.5)
2022	4,815 (70.4)	10,143 (60.5)
2023	4,351 (68.8)	10,223 (60.0)
2024	4,838 (70.8)	10,057 (60.0)

자료: Global Trade Atlas

## 2) 독일 수출 구조 벤치마킹을 통한 수출 전략

- ① (수출 품목 더하기) 수출 경쟁력 우위에 있는 품목을 확대하고, 차세대 첨단산업 분야 품목의 시장 선점을 통한 지배력 확보

√ 총수출 중 10대 품목 비중이, 독일은 28.5%로 한국의 50.2%보다 21.7%p나 낮아, 특정 산업변화에 따른 수출 리스크 분산

- (초격차 수출 품목 확대) 세계시장 1위 품목의 초격차 유지 및 수출 경쟁 품목의 기술·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 (신규 수출선도 품목 개발) 반도체, AI,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 제품의 선제 개발 및 글로벌 표준 선점을 통해 시장 주도권 확보
- \* 독일은 기계·자동차 분야, 미국은 소프트웨어·ICT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 선도

- ② (수출국 넓히기) 신규 수출 유망국 확대 및 경제블록 진입 등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별 시장점유율 제고

√ 독일은 수출 10대 국가의 비중이 60.0%로 한국의 70.8%로 보다 10.8%p 낮아, 특정국 시장상황에 따른 영향력 완화

- (수출 네트워크 확대) 기수출 국가와 산업구조 및 기업 여건 등 수출 환경이 유사한 인근국 및 미개척 신흥국 마케팅 강화
- (넓은 경제영토)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구조 개선을 위해 경제협력 대상국 확대를 통한 통상 리스크 완충 및 다변화 추진
- \* CPTPP, 메르코수르 등 다자간 경제블록 가입을 통한 협력 강화

- ③ (기술 역량 높이기)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용 기술개발-사업화-기술 전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 구축

√ 산·학·연 제도의 발달과 가업승계를 통한 기술 전승이 독일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독일의 수출기업 수는 26만 7천개사로 한국보다 2.7배 많은 36만 7천개사

- (기술개발) 첨단 소부장 분야의 제품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기술개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수출부가가치율 제고
- \*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는 독일 내 75개 연구소를 운영, 소재 지역 대학교와 협력하며, 기업 위탁 또는 공동연구를 통해 실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추진

- (기술 전수)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기술과 노하우가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100년 기업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독일은 가족기업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지속가능과 고용 안정성 중시

④ (무역장벽 낮추기) 경제협력국과의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를 통한 인증·통관 등 비관세 무역장벽 낮추기

√ 독일은 단일경제권인 EU 시장 내에서 무관세뿐 아니라, 무통관·규제 완화 등 회원국들을 비관세장벽이 없는 내수시장처럼 활용

\*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무역 증진 및 상호 경제기술협력을 위해 복수 국가 간 서로의 인증, 표준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협정

- (인증) 수출기업의 해외 시험·인증을 위한 시간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상호인정 가능한 품목 및 국가 확대

- (통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에 대한 통관 간소화 협력 국가 확대를 통해 수출기업의 신속 통관, 검사 축소 및 비용 절감 지원

\* AEO 상호인정 체결국(25.4. 기준): 미국, 일본, 중국, 인니 등 25개국 (EU와는 미체결)

## 작 성 자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팀장  
김승현 차장  
이주혜 과장

KOTRA자료 25-094

## 독일 수출 구조 분석

발 행 인 | 강 경 성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25년 8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구미CIS팀  
(02-3460-3269)  
I S B N | 979-11-402-1403-7 (95320)

Copyright © 202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